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0 0 1

축산계열화법 시행 후 8개월

표면상으로 상생을 외치는 시대는 지났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흘렀다.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새로운 법에 적응할 만도 하지만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성화식품(주) 사태로 불거진 '사육비인하'와 '분쟁조정 신청'도 문제가 제기된 지 2개월여가 지나고 있음에도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육비 강행을 하려다 주춤했던 일부 계열사들이 서둘러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육비 인하를 현실화시키는 것을 보면 진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구심이 앞선다.

축산계열화법이 존재하지만

축산계열화법은 계열업체와 농가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안정적인 육계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주요 내용은 그 동안 분쟁의 소지가 컸던 계약사육과 관련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표준계약서를 공식적으로 공표토록 하였고,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육계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

협의회' 활동만 봐도 축산계열화법에 대해 계열사들이 얼마나 소극적인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다. 성화식품(주) 계약서 변경(위탁수수료 인하건)에 대해 충남도청에서는 최종합의를 도출하려 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사)대한양계협회에서 구성한 '축산계열화사업 협의회'에 중재를 넘기게 되었다. 하지만 1차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계열사 대표가 아닌 임원진이 참석하였고, 위원장 선출 및 차기회의에서 당사자들을 불러 분쟁조정을 조율키로 했으나 모든 계열사들의 불참으로 농가들만이 참석한 반쪽자리 협의회로 끝나는 실속 없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물론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서로간의 입장을 밝히며 중재에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였지만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현실을 외면하려는 계열사들의 모습이 좋게 비춰질 리가 없다.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

정부에서는 축산계열화법 시행과 관련하여 농가협의회 구성과정 등에 혼선이 발생하자 지난 9월 17일 각 시·도에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는 공문을 시

달하였다. 정부는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및 지도 등을 통해 제도정착을 한 걸음 앞당기겠다는 각오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정기조사와 상시 실태파악을 당부하였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나 관련부서 신고함을 마련하고 연 2회(4월, 10월)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의 주 내용은 계약서 작성, 사육경비 지급, 준수사항, 농가협의회 구성과 협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로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서(가축, 사료 품질기준 등)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등,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 및 분쟁조정위원장이 위반사항(제7조~제9조, 제14조 2항·4항 및 33조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에게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록 되어 있다. 또한 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생대회 등 계열화법 정착 움직임

(사)대한양계협회는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가 권리를 찾기 위해 24일 남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육계인 순회교육에 돌입했다.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화가 갑과 을의 종속관계로 축산계열화사업법 시행 전과 전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분쟁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사)한국계육협회에서도 안성팜랜드에서 '계열농가 상생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가 교육 및 단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축산계열화법'의 조기 정착이 가장 큰 핵심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표면상으로만 상생을 외치는 시대는 지났다. 왜! 축산계열화법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진정한 상생의 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번 기회에 계열사와 농가간의 관계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계열화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농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
(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한국계육협회
정 병 학 회장

지난 10월 22일 (사)한국계육협회는 협회 회의실에서 '2013 전국 계육인 상생 전진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병학 회장은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생산·공급하는 주체로서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화합과 단합을 다져 지속적인 동반성장 및 육계산업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개최하게 되었다"며 대회 취지를 밝혔다.

정병학 회장은 한·미 FTA와 한·EU FTA가 체결된 지 1~2년이 넘는 시점에서 국내 닭고기산업의 생산 경쟁력은 선진국 수준의 30~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관세율이 20%만 내려도 국내 닭고기산업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산업의 앞날을 걱정했다. 그러므로 'FTA의 파고를 넘기 위한 안간힘'이라는 심정으로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서로 상생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체가 상생하며 수입산 닭고기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대회에서는 육계농가와 계열화 사업체 종사자 간의 '상생협력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병학 회장이 이번 대회의 취지 및 행사 일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이다.



정병학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축산전문기자들에게 대회의 취지 및 진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뷰

계육협회, '2013 전국 계육인 상생 전진대회' 개최 통해 상생 기반 다질 것

11월 5일, 안성팜랜드 아그리움(실내행사장)에서 1,500명 규모 계육인 참가 예상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동반성장과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대회 기대돼

■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계육인이 서로 함께 화합하고 단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즐거움을 더하는 상생 축제의 장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계열화사업은 농가가 먼저 있고 계열화사업자가 그 다음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가 닭을 생산해야 계열화사업자가 닭고기를 가공·판매하는 것인 만큼 닭고기산업에 있어 농가의 역할은 크고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육계농가는 농가 대로,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자 대로 애로 사항을 토로하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농가에서는 계열화사업자가 친분에 따라 병아리를 차등하게 입추해준든지 회사의 횡포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편 계열화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사육을 제대로 하는 농가들은 불평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병아리를 제대로 사육하지도 않으면서 소득이 형편없다고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언급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국내 닭고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계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 협력과 화합을 통해 동반성장하고 닭고기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한·미 FTA와 한·EU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 닭고기산업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한·미 FTA와 한·EU FTA가 체결된 지 1~2년이 지났고 국내 닭고기 경쟁력이 선진국의 30~70% 수준인 만큼 앞으로 관세인하가 진행된다면 국내 닭고기산업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저희 협회와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가 함께 대형마트 수입산 닭고기 저지운동을 펼친 것도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진행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수입산 닭고기 저지운동은 수입산 비율을 18%대로 하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입산 닭고기 저지운동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결국 축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번 대회 개최에는 FTA의 파고에서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 대회에서는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맺는다고 하던데요. 상생협력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열사는 계약사육농가의 사육횟수를 늘려 농가 소득분배를 위해 최대한 힘쓰고 계약농가와 맺은 사육기간 내에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지하지 않으며 계약농가와 제도 개선 등 정당한 주장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계농가의 경우에는 대형유통점이나 프랜차이즈의 횡포를 막고 가격 교섭력을 높이는데 적극 동참하며 회사의 사양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닭고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계농가도 계열화사업자와 협조하여 회사의 수익향상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함께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사육계약을 맺어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 앞으로 (사)한국계육협회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정부에서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정부에 닭이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보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식량자원으로서 육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육계산업의 난관을 전할 생각입니다. 또한 P-Box를 통해 신선 닭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육계산업 앞에 쌓여있는 난제들과 거센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시 : 2013년 11월 5일(화) 12:50~18:30

장소 : 안성팜랜드 아그리움 (실내행사장)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닭고기조금관리위원회

주관 : (사)한국계육협회

후원 : 농협중앙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참가대상 : 육계농가 및 계열화사업체 종사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농업인 등

HOT
ISSUE

0 0 2

토종닭협회 10주년 및 한협 60주년 기념 '제1회 한닭인 대회' 성료

종자전쟁에 맞선 토종 종자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보급을 위한 노력 결의

토종 종자를 지키며 토종닭의 산업화에 기여한 토종닭 관련 종사자가 '제1회 한닭인 대회'에 함께 모여 화합하며 미래의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사)한국토종닭협회 창립 10주년과 (주)한협 6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었으며, '행복한 먹거리! 문화, 관광의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선포하며 토종닭 산업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 김춘진 국회의원(민주당),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농축산연합회 김준봉 회장, 축산단체협의회 이창호 회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남성우 대표이사, 닭고기자조금관리

위원회 이홍재 위원장,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김근호 명예회장, (주)한협 박준형 회장, 축산물 HACCP기준원 조규담 기준원장, (주)하림 김홍국 회장 등 축산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해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토종닭은 수입되지 않은 토종 종자로 향후 종자전쟁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한 생산을 기반으로 종자에서 식탁까지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모두 토종닭 산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

고 전하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화합과 상생의 장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각 지회 대표들의 협회기 입장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4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상 1점, 농촌진흥청 청장상 1점, 축산물HACCP기준원 원장상 1점, 농협중앙회장상 2점과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상 16점을 시상하고 양계사진 공모전 입상자를 시상했다. 이후 한닭 홍보대사로 개그맨 고명환 씨가 재위촉되었으 며, (사)한국토종닭협회 BI/CI 선포식, 토종닭 비전선포식, 올해 새롭게 제작된 협회 CI/BI에 대한 선포

식 등이 진행되었다. 김춘권 공동브랜드 국가위원장과 김정남 전 대전지부장이 낭독한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채택도 이어졌다.

미래의 종자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토종닭 산업을 지키고 산업 발전에 힘쓰는 토종닭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토종닭의 세계화가 앞당겨지며 국내산 닭고기 에 대한 국내·외적인 소비촉진이 활성화 될 것 기대해 본다.



김연수 회장이 종자전쟁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며 안전한 토종닭을 공급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종닭 종사자 합동교육 실시

종자강국 위한 종자개발 계획 및 AI 차단방역의 중요성 강조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제1회 한닭인 대회'에 앞서 10월 1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종닭 관련 종사자 합동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GSP종축사업단 서옥석 단장이 'GSP 국산종계 개발 및 산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농축수산업을 선도하는 종자강국의 실현을 위해 토종닭의

경우 2021년까지 정부 185억 3천만원, 민간 38억 6천만원을 투자해 종계(삼계탕 전용) 종자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발종자를 내수산업에 보급하고 해외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서재호 사무관이 '정부의 축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정부에서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열화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진호 사무관은 '국내·외 AI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을 통해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유전적 변이가 쉽게 발생하므로 농가들이 AI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가경쟁력 강화 위한 합동교육을 경청하고 있는 토종닭 관련 종사자들

한닭인대회
이모저모

▼ 접수처에 모여 교육 등록 및 접수 하고 있는 한닭인들



▼ 초대형냉장고 경품에 당첨된 중계부화분과 박종길 대표



◀ 한닭인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정진 상임부회장



▲ 농축산부 이준원 차관보(중)와 농축산부 장관상 수상자들



▲ 토종닭 '한닭' 홍보대사로 재위촉된 개그맨 고명환(좌)



▲ 화려한 공연을 펼치는 선문대 응원단(좌)과 공연을 즐기는 한닭인들(우)



▲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HOT
ISSUE

0 0 3

‘국산닭고기인증제’를 통한 국내 육계산업 활성화

개방화 시대 육계산업 생존 모색



전 세계의 육류시장은 이제 화이트미트(백색육)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들면서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적색육에서 닭고기 등의 백색육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와의 FTA가 이미 체결된 상태이고 중국과의 FTA가 1단계 협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목전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에 그 동안 기록해 놓은 국내 닭고기 시장을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국산 닭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닭고기의 경우 2010년부터 배달용 치킨에도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정확히 명기하도록 하면서 국내산 닭고기 사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이미 2009년 말부터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산닭고기만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 국산닭고기가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제’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증표시 실시로 국산 닭고기의 공정거래실현은 물론, 육계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는 보증제도이다.

현재 ‘국산닭고기인증’ 업체는 총 12개 업체가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면 국산 닭고기 사용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게 된다.

국산닭고기인증 대상 업체는 도계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 및 요

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레스토랑, 체인점, 프랜차이즈 등)로 국산 닭고기만을 100% 가공·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소)에 대해 선정된다.

‘국산닭고기인증제’는 닭고기 자조급사업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는 우선 춘천닭갈비협회 회원사들이 100% 국산닭고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6월 18일 ‘국내산닭갈비 소비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관련 업체들에 대해 ‘국산닭고기인증’을 부여할 예정에 있다. 인증 받은 업체는 인증 및 인증마크를 부여받을 뿐 아니라, 부여업체에 대한 인증내용 및 인증협약체결과 인증서 발급·홍보물 지원 등을 추후 계획하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는 TV와 지하철

| 국산닭고기인증 업체 |

번호	업체명	브랜드
1	(주)한국153농산	처갓집 양념통닭
2	(주)에이에프씨코리아	아주커치킨
3	(주)들판	들판
4	(주)지엔푸드	굽네치킨
5	(주)이가에프디에스	에코윌
6	(주)마세다린	사바사바치킨
7	유진물산	꾸꾸루꾸
8	(주)체리부로	체리부로
9	(주)사조인티그레이션	사조인티그레이션
10	장모육계유통	장모님치킨
11	선진VFC	치킨파티
12	(주)DS푸드	피자와 치킨의 레브레터
합계	총 12개 인증업체(프랜차이즈사업체 9개, 육가공업체 3개)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타겟으로 ‘국산닭고기인증’을 홍보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산닭고기인증제’는 안전한 국산닭고기에 대한 인증인만큼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대형 닭 생산으로 닭 가슴살 수요를 해결하자!

농촌진흥청, 부분육 수요 충당을 위한
대형육계 생산 핵심기술 소개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10월 8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육계 생산 현장평가회를 개최하고,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닭고기 가슴살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대형 닭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닭고기는 대부분 32~35일령의 육계로 도계하여 도체 무게가 1kg 전후로 부분육 생산이 어려워 부분육의 상당수

를 수입으로 충당했으며 성숙이 되기 전에 도계되기 때문에 닭고기의 맛을 충분히 내기 어려웠다”고 전하며 “대형육계는 출하일령이 42~49일로 생체 무게가 2.5~2.8kg으로 살코기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며 맛 인자인 이노신산 등이 많아 맛이 좋고 고기가 쫄깃하다”며 대형육계 생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대형육계 생산 시에는 가슴살과 같은 부분육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입추 시 병아리에 대한 가격 부담이 낮아지므로 경영비는 29%까지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대형육계 생산 핵

심기술로 환기시설이 완비된 완전계사에서 사육해야 하며 사육밀도는 출하체중을 기준으로 30kg/m²를 준수해야 하고 급사증후군(SDS)을 막기 위해 사육 초기에는 제한점등 방법으로 성장을 억제하고 후기에 보상 성장할 수 있는 점등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선진 외국은 이미 대형 닭고기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가슴육 등 부분육의 수요충당을 위

해 대형 닭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형육계 생산체계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 신규농가 및 3년미만 농가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진행

농협중앙회에서는 축산농가 의무교육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신규농가와 3년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표와 같이 11월 중 진행한다.

금차 교육대상자는 허가제상 면적(닭·오리 사육시설면적 2,500m²초과)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자 중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24시간) 및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12시간)이다. 또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경우는 사육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신규로 허가받으려는 자 및 경력이 3년 미만인 자가 교육대상이다.

교육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규농가와 3년 미만 농가의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상시 개설 또는 지역별 개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당 농가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반드시 참가하기 바란다.

| 교육과정 개설 내용 |

교육일시	교육장소
2013년 11월 6일 ~ 11월 8일 (12시간 대상자 : 11월 6일 ~ 11월 7일)	경산축협 계양지점 (경북 경산시 사동 573-7)
2013년 11월 12일 ~ 11월 14일 (12시간 대상자 : 11월 12일 ~ 11월 13일)	안성팜랜드 홍보실(1층) (경기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451번지)

※ 24시간 교육자는 3일간, 12시간 교육자는 2일간 참가

※ 해당 교육과정은 교육비(24시간 : 9만원, 12시간 : 3만원) 외에도 식비 및 숙박비 등 교육생 자부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 건폐율 운영현황 조사결과 발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위한 건폐율 조사결과, 건폐율 60% 확대운영 지자체 126개소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실시요령 마련과 더불어 건폐율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시·도(군)에서 조례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제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현황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전국 시·도(군)의 건폐율 운영현황을 지난 '12년 9월에 이어 2차 조사하여 결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역시(제주포함) 중 부산 1개시만 조례를 미제정하였고, 서울 등 1개시는 20%, 대구 등 3개시는 50%, 인천 등 3개시는 60%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총 153개 시·군 중 20% 20개, 40% 1개, 50% 9개, 60% 123개 시·군으로 파악되었다. 강원은 모든 시·군에서 60%로 운영하는 반면, 경기도는 20% 16개, 40% 1개, 50% 3개, 60% 11개 시·군으로 도시화로 인해 건폐율 상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1개, 충남 1개, 전북 2개, 전남 2개, 경북 1개, 경남 3개 시·군은 20~50%로 운영 중이며, 지난해 조사결과에 비해 건폐율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농축산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건폐율 상향을 위한 기반 구축 효과가 있었으며,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한 지자체가 104개소에서 126개소로 증가(21%)되어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건폐율 상향조정 권고 이후, 지자체별 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상향하는 효과가 상당 부분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앞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건폐율 현황을 반영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건폐율이 낮

은 시·도(군)에 지속적으로 건폐율 상향조정을 유도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건폐율 운영현황 조사결과(2012년 9월)

건폐율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미제정	3			1					7	11(6.8)
20%	3	12		2		1	1		2	21(13.0)
30%		1								1(0.6)
40%						2				2(1.2)
50%	2	5			2	11	1		2	23(14.2)
60%	1	13	18	9	13		20	23	7	104(64.2)
계	9	31	18	12	15	14	22	23	18	162(100)

2차 건폐율 운영현황 조사결과(2013년 9월)

건폐율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미제정	1									1(0.6)
20%	2	16		1		1	1		1	22(13.6)
30%										0(0.0)
40%		1								1(0.6)
50%	3	3			1	1	1	1	2	12(7.4)
60%	3	11	18	11	14	12	20	22	15	126(77.8)
계	9	31	18	12	15	14	22	23	18	162(100)



육계질병가이드 / 콕시듐 백신의 장점

Q. 콕시듐 백신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A. 한국에서는 콕시듐 백신을 육계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제하기가 어렵고 귀찮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하일령이 빠르기 때문에 콕시듐 백신에 의해 후반기에 들어서 보상성장을 시키는 효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사용하면 일단 약제내성이 없고 잔류나 독성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항콕시듐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첨가제 종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비교적 효과가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투여방법도 부화장에서 1일령 분무를 하는 방법과 사료에 첨가하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로는 농장에 오염된 콕시듐 원충을 백신균주로 교체시켜 약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입니다. 외국에서도 로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몇 차례의 항콕시듐제와 케미컬제품을 사용한 이후 백신을 투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또한 백신은 육질과 깃털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백신을 투약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계군에 백신이 골고루 면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일도가 높게 유지되면 콕시듐이 몸에서 한 사이클, 두 사이클을 돌며 일시에 면역이 형성되고 일시에 상황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골고루 형성되지 않으면 백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계군 중에서 배출한 분변을 섭취한 병아리들은 갑자기 많은 증상을 섭취하게 되므로 백신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콕시듐 백신은 살아있는 무거운 원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니플로 음수 투약하면 가라앉게 되고, 먹는 시간과 급수량에 따라 골고루 섭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투약은 음수보다는 사료에 분무, 그보다는 1일령 분무 등으로 균일도가 높게 백신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농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필드 수의사와 상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공 : 반석 기금진료 연구소)

(주)마니커, 전통의 맛을 살린 청춘담발과 낭만근위 출시



포장마차의 대표 메뉴인 담발과 근위가 추억의 맛 그대로 (주)마니커에서 출시되었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마니커(대표 신계돈)는 국내산 닭고기만으로 만든 '청춘담발'과 '낭만근위'를 지난 10월 31일부터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름부터 독특한 이 두 제품은 담발과 근위의 주 소비층이 포장마차에서 먹던 맛에 가장 향수를 느끼는 점에 착안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통 있는 전문점과 포장마차를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시행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화끈하게 매우면서도 뒷맛이 개운한 양념소스의 맛을 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청춘담발은 뼈를 모두 제거한 제품이며, 담발과 근위에 각각 자체

개발한 양념소스가 들어 있어 가정에서 손쉽게 맛있게 조리할 수 있다. 특히 양념소스에 들어가는 야채는 신선한 상태의 야채를 그대로 갈아 넣어 뛰어난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다.

(주)마니커 관계자는 "청춘담발과 낭만근위는 복고풍의 이름에서 나타나듯 포장마차에서 오랫동안 즐기던 전통의 맛을 가장 잘 살린 제품"이라며 "시중에 담발과 근위제품이 많이 있지만 어느 제품보다 맛이 뛰어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청춘담발과 낭만근위는 각각 350g(양념소스 100g 포함)과 430g(양념소스 100g 포함) 포장으로 출시되는데 인터넷쇼핑몰과 할인점, 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될 예정이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목우촌 도계장 자조금 납입농가 현황

| 농협목우촌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4월

(단위 :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 소
김성노	전남광주	86,775 (86,775)	광주 광역시
이병규	과산축협	113,055 (136,152)	충북 과산군 증평읍
신호정	부산축협	39,678 (64,620)	경남 밀양 하나읍
오세원	부산축협	67,938 (96,834)	부산 강서구
안병전	평택축협	27,954 (92,127)	경기 평택 고동면
영 천	영천축협	30,255 (74,994)	경북 영천시
오해진	청주축협	14,556 (14,556)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이창열	양평축협	149,883 (185,937)	경기 여주
임병동	임병동	109,626 (224,259)	경북 안동시 북후면
김은성	김은성	120,774 (251,439)	경기 양평군 강하면
윤성일	윤성일	107,712 (233,889)	경북 김천시 남면
김흥근	김흥근	219,150 (398,862)	경북 김천시 개령면
송병만	송병만	54,519 (163,434)	경북 김천시 감문면
이봉식	이봉식	63,177 (63,177)	경북 김천시 조마면
김창식	김창식	120,405 (120,405)	경북 김천시 대덕면
합 계		1,325,457	

* ()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농협목우촌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5월

(단위 :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 소
김성노	전남광주	60,852 (147,627)	광주광역시 동구
김성노	나주축협	13,140 (34,782)	전북 군산시
황봉서	연기축협	50,868 (84,519)	충남 연기군 소정면
유용식	서산축협	66,405 (66,405)	충남 서산시 인지면
여두선	평택축협	41,214 (41,214)	경기 평택 고동면
신호정	부산축협	27,624 (92,244)	경남 밀양 하나읍
오세원	부산축협	30,018 (126,852)	부산 강서구
엄승제	대전축협	231,841 (231,841)	충남 부여군 홍산면
이진표	대전축협	19,520 (19,520)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이병규	과산축협	26,925 (163,077)	충북 과산군 증평읍
오해진	청주축협	35,199 (49,755)	충북 청원군 가덕면
성우동	성우동	44,520 (119,925)	경북 김천시 구성면
김광엽	김광엽	16,044 (16,044)	경북 칠곡군 북삼읍
배동호	배동호	29,316 (103,191)	경북 칠곡 지천면
김영철	김영철	83,004 (294,264)	경북 김천시 지례면
박제면	박제면	129,672 (369,642)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성운동	성운동	83,250 (212,181)	경북 김천시 구성면
조병기	조병기	88,026 (263,547)	충북 괴산군 문광면
합 계		1,077,438	

* ()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농협목우촌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6월

(단위 :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 소
박경애	박경애	58,539 (183,576)	경기 양평군 지제면
이종철	이종철	129,366 (129,366)	충북 음성군 대소면
윤성일	윤성일	82,095 (315,984)	경북 김천시 남면
배제봉	배제봉	58,653 (58,653)	경북 김천시 지례면
임병동	임병동	104,355 (328,614)	경북 안동시 북후면
김흥근	김흥근	144,270 (543,132)	경북 김천시 개령면
김은성	김은성	119,157 (370,596)	경기 양평군 강하면

송병만	송병만	102,669 (266,103)	경북 김천시 감문면
이봉식	이봉식	59,826 (123,003)	경북 김천시 조마면
배동호	배동호	77,250 (180,441)	경북 칠곡 지천면
황봉서	연기축협	43,518 (128,037)	충남 연기군 소정면
이병규	과산축협	128,655 (291,732)	충북 과산군 증평읍
신호정	부산축협	49,509 (141,753)	경남 밀양 하나읍
오세원	부산축협	30,024 (156,876)	부산 강서구
유용식	서산축협	56,037 (122,442)	충남 서산시 인지면
오해진	청주축협	14,463 (64,218)	충북 청원군 가덕면
영 천	영천축협	14,421 (89,415)	경북 영천시
이창열	양평축협	71,952 (257,889)	경기 여주
이진표	대전축협	10,000 (29,520)	충남 금산군 진산면
합 계		1,354,759	

* ()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농협중앙회



파주개성인삼축제에 참가해 '7색7미 발효맛닭' 소개

농협중앙회와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는 지난 10월 19일(토)부터 20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국민관광지에서 진행된 파주개성인삼축제에 참가하여 닭고기 요리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중앙회는 1고3저(고단백질,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저지방)의 닭고기와 몸에 좋은 발효음식을 조화시켜 만든 '7색7미 발효맛닭'을 소개하며 최근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농협중앙회는 중앙무대 옆 요리주제관에 패널을 설치하고 홍보했으며 '7색7미



〈'7색7미 발효맛닭' 패널 모습〉

발효맛닭' 시식회를 진행하는 한편, '7색7미 발효맛닭'의 레시피가 담긴 리플렛을 배부했다. 리플렛을 배부했다.

(사)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의 개최



육계분과위원회는 사육농가와 성화식품(주)과의 갈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지난 10월 18일(금) 대전에서 10월 육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분과회의에서는 사육비 인하 강행으로 인한 성

화식품(주)과의 갈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일부 계열사의 사육비인하 통보로 인한 농가의 불만이 커지자 계열사와 농가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충남도청에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신청하면서 농가협의회 구성이 급물살을 탔으나, 계열사측에서는 자체적으로 농가협의회를 구성한 반면, 사육농가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협의회 구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

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 농가 협의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축산계열화법이 통과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육계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국단위 교육을 시행키로 하

고 각 지역 농가들에게 교육참여를 독려키로 하였다.

그 외에도 분과회의에서는 10월부터 시작되는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에 관한 보고와 더불어 농가의 방역철저를 당부하였다.

2013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 실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지난 2월 육계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농가와 계열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가와 계열업체의 상생협력 및 양계산업 안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코자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을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전국 양계(육계, 토종닭, 삼계, 육용종계) 사육농가전원으로 10월 중 전북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11월 중 전국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상반기 개최장소 및 일자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지역의 많은 육계농가의 참여 바란다.

가. 교육일정 및 장소

지역	일시	장소
전북	10.24(목) 14:30	남원농업기술센터 대강당(3층)
	10.25(금) 09:30	김제농업기술센터 대강당(3층)
	10.25(금) 14:30	정읍농업기술센터
전남	10.30(수) 09:30	함평농업기술센터
	10.31(목) 09:30	순천농업기술센터 교육관
	11.06(수) 09:30	양평농업기술센터 친농교육관
경기	11.06(수) 14:30	포천농업기술센터 대강당
	11.08(금) 14:30	안성농업기술센터

나. 행사진행 순서 : 1일 1~2회(오전, 오후 강의로 진행 예정)

	시간	내용	강사
오전회의	09:30 ~ 10:00	• 등록 및 접수	
	10:00 ~ 11:00	• 축산계열화법 설명	• 관할도청 담당관
	11:00 ~ 11:30	• 육계산업 현안 설명	• (사)대한양계협회
	11:30 ~ 12:00	• 질의응답	
	12:00 ~	• 폐회	
오후회의	14:30 ~ 15:00	• 등록 및 접수	
	15:00 ~ 16:00	• 축산계열화법 설명	• 관할도청 담당관
	16:00 ~ 16:30	• 육계산업 현안 설명	• (사)대한양계협회
	16:30 ~ 17:00	• 질의응답	
	17:00 ~	• 폐회	

* 상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교육확인증 제공

(사)한국계육협회



11월 5일, 전국 계육인 상생전진대회 열어

오는 11월 5일 안성팜랜드에서 처음으로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체간 상생전진대회가 열린다.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생산·공급하는 주체로서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협력(相生協力)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화합과 단합을 다져 지속적인 동반성장 및 육계산업 발전을 이루어나고자 개최되는 『제1회 전국 계육인(鷄肉人) 상생전진대회』이다.

본 협회 정병학 회장은 “현재 우리 육계산업은 한미 FTA에 이은 한중 FTA 협상 추진,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폭락,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사육원가 등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육계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협력을 통해 협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앞에 쌓여있는 난제들과 거센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회가 전국의 계육인들

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과 화합을 통해 동반성장과 닭고기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진대회는 총 3부로 나뉘어 개최될 예정이다.

1부는 ‘환영의 장’으로 식전 축하공연, 영상 상영, 명사초청 특별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2부는 본행사인 ‘상생의 장’으로, 육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닭고기 홍보대사 위촉, ‘닭고기 가치와 계육산업 중요성 재조명’에 대한 주제영상 상영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맺어 화합과 결속을 다진다. 3부는 ‘화합의 장’으로 레크레이션과 인기가수 초청 축하공연 및 참가자 장끼자랑, 경품추첨 등으로 이날 행사의 흥을 돋을 예정이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제1회 한식의 날 행사 참가



토종닭협회는 ‘한식의 날’ 행사에 참가해 홍보관을 마련하고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해 세계에 한식의 날의 의미와 비전을 알리는 한편 국내 국민들도 하여금 한식의 소중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협회는 이번 행사에서 토종닭 홍보관을 마련하고 농가, 일반소비자, 및 생산자, 문학인, 요리전문가, 공

광화문 광장에 토종닭 홍보관 마련

「제1회 한식의 날」이 한식의 날 추진위원회의 주최, (사)대한민국한식협회와 (재)한국음식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 각 부처, 지자체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23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및 세계 한식의 날 선포식과 세계 각국의 홍보대사 위촉을 통

무원, 언론 및 VIP 등 초청자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토종닭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벌였다. 특히 홍보관에서는 토종닭 혼제 시식과 토종닭볶음탕, 닭곰탕, 닭백숙 등 다양한 제품과 토종병아리를 전시해 참관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시식 행사와 더불어 진행된 다양한 이벤트는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1회 한국상품전시 상담회 참가



토종닭협회 회원사인 소래영농조합법인이 한국상품 전시상담회(일본 오사카)에 참가했다

이번행사는 닭고기자조금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음식에 관심이 많은 일본 바이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건강식인 토종닭삼계탕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토종삼계탕, 오골계삼계탕 선보여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개최하는 한국상품 전시상담회가 일본 오사카의 마이도오사카에서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7회째로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그 동안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본 협회 회원사인 소래영농조합법인(대표 김연수)도 오골계삼계탕과, 토종삼계탕으로 야심차게 일본진출을 준비해왔고 이번 전시상담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미리 예약된 바이어 외에 많은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격과 운송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일본수출은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맺은 관계는 오래 지속·확대 유지된다는 점과 운송료 등에서 가까운 주변국이라는 이점이 있다.

특히 토종닭은 일본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는 품목이므로 수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청양 구기자 닭찜

청양 특산물인 구기자는 특정한 병의 치료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장복하면 생리작용을 원활히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장제, 해열제로도 널리 이용된다. 구기자 닭찜은 구기자 조미소금을 찍어 먹으면 더욱 감칠맛이 있다.

재 료 닭 1마리(800g), 구기자 1/2컵, 생강 5g, 대파 1대, 마늘 5쪽, 청주 2큰 술
겨 자 소 스 갠 겨자 1큰 술, 간장 2큰 술, 식초 1작은 술, 설탕 1/2큰 술, 배즙 1큰 술
구기자 조미소금 볶은 구기자, 볶은 소금, 후추

Cooking

1. 닭은 배를 갈라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2. 구기자는 물 1컵에 담가 불린다.
3. 생강, 마늘은 편으로 썰고 대파는 큼직하게 뜯어 놓는다.
4. 접시에 ①의 닭을 펴놓고 위에 불린 구기자, 생강, 마늘, 대파, 청주를 뿌린 다음 끓는 찜통에 넣고 1시간~1시간 30분간 푹 무르게 찜을 한다.
5. 겨자소스나 구기자 조미소스를 곁들인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낱말맞추기

1		9		10	
2				11	
			12		
3	4			13	14
	5		7		
6			8		

◇ 가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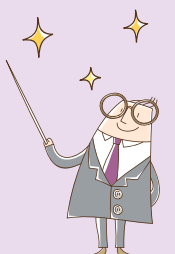
- ② 시가지의 도로를 따라서 줄지어 심어 놓은 나무
- ③ 약품이나 열을 이용하여 세균 따위의 미생물을 죽임
- ⑤ 어느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내용을 적은 기록
- ⑥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함
- ⑧ 토종닭의 새끼를, 최근 '제1회 00인 대회'가 개최되었음
- ⑨ 서투르고 미숙하여 곳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당, 000이 사람 잡는다
- ⑪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익속하도록 되풀이하여 익힘
- ⑫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고리
- ⑬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씌

◇ 세로풀이

- ①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최근 몸매 관리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닭의 부위
- ④ 품질이나 품종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매긴 가격
- ⑦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 ⑨ 운동경기나 기술 따위에서 기량이 뛰어나 대표로 뽑힌 사람
- ⑩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판단할 때에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여겨지는 일
- ⑭ 싹싹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

58호 정답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양 계
비법전수저온기 환기불량이 육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육계농가들은 연료비를 줄이기 위하여 육추초기에 가능하면 환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입추 후 계사를 완전히 밀폐하였다가 20일 정도가 경과되어 야 윈치커튼을 개방하여 환기를 시작할 정도로 겨울철에 환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겨울철에 환기가 불량하게 되면 계사내부의 산소가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육계농장에서 산소결핍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적당량의 수분 배출을 하

지 못하게 됨에 따라 깔짚 수분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깔짚이 습해짐으로 인해 암모니아 가스발생량이 증가한다. 특히 깔짚을 연속으로 이용하는 농가는 연속이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출하 후에 깔짚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수록 암모니아가스 농도는 50~100ppm까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환기 불량으로 사육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증체율, 산란율 등이 감소하여 사료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암모니아가스, 이산화탄소, 먼지 등의 증

가와 산소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환기불량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진 닭들은 옆의 닭을 쪼는 등 카니발리즘이 발생하게 되고 피부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여 도체이상에 의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깔짚이 습해지게 되면 콕시듐 원충란이나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한 장염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생산성적이 나빠지게 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